

“한글 창제·보급 이면에 불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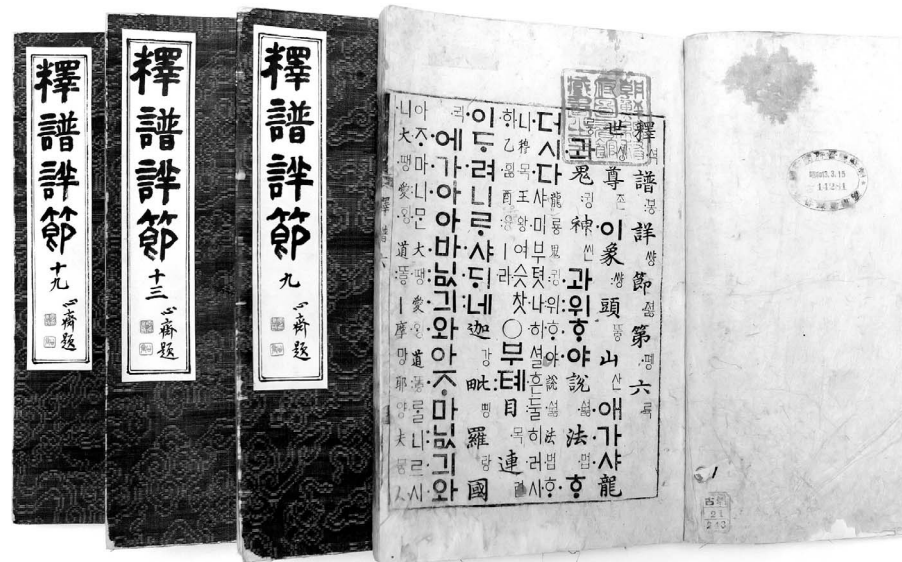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와 한글> 학술세미나

22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된 한글날을 맞아 불교와 한글의 관계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현각)이 ‘불교와 한글’을 주제로 10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는 국어학자와 그래픽 전문가 등이 나서 한글 창제과정에서 불교의 영향 등을 조명했다.

임흥빈 “유학계 반대에 세종 친제 내세워”
“훈민정음 창제 당시 신미(信眉) 대사나 김수온(金守溫) 같은 불교계 인물이 참여했으며 유학계의 반발을 고려해 세종은 친히 지은 것을 강조했다.”
임흥빈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음자 배열에서 음가를 설명하는 대표자에 이러한 불교적 요소가 드러난다. 또 <훈민정음>과 <훈민정음해례>의 장수를 합하면 총 33장인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33천을 상징하는 수”라며 “불교계 인사가 두책을 합하여 총괄하며 이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흥빈 교수는 이어 “특히 <세종어제훈민정음>의 어제 서문의 글자수는 108자인데 108자를 맞추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이어 이러한 불교계의 참여는 당대 유학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문종대 <세종실록>을 보면 오자, 괴상한 한자, 오류 등이 엄청나게 많

다. 왕조의 기록에 부주의해 잘못을 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세종을 모독하려는 의도를 가진 유학자들의 의도로 세종의 정음 창제와 그 뒤에 이어진 불경 번역 등에서 철저히 소외된 인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수 “불교문화가 한글꼴 형성에 영향”
글꼴 연구의 선구자인 안상수 ag타이포그래피연구소 소장은 두 번째 발표인 ‘문자 문화와 불교’에서 조선 말기까지 불경 언해 과정의 한글 글꼴이 당시 한글 글꼴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예를 들고 현대 한글꼴에 이러한 전통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소장은 “당시 한글은 유학자들의 반대로 그들의 관심이 적은 불경을 먼저 언해하며 활용됐다”며 “세종의 명을 받은 수양대군은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모은 글을 한글로 번역하고, ‘석보상절 정음 낱쇠활자체’를 주조해 최초의 한글 불경이자 한글 낱쇠 활자본인 <석보상절(釋譜詳節)>을 간행했다. 이러한 불경 언해본 간행은 한글을 통한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안 소장은 이어 “조선 말기까지 불경 언해는 꾸준히 진행됐다”며 각 시대별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글꼴을 소개했다.
안 소장은 불경 언해 시작기(1449~)에 한글 창제 원형인 정음체를 계승한 석보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보물 제523호 <석보상절>. 세종때 소현왕후 심씨의 명복을 빌기위해 수양대군이 간행한 책이다. 석보체 등 초기글꼴은 이러한 간행과정에서 탄생했다.

‘33장, 108자’ 신미·김수온 참여 증거 초기글꼴 불경언해 과정에서 탄생

와 월인석보체가 활용됐으며 불경 언해 부흥기(1461~)에는 오늘날 글꼴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구조를 지닌 강화안체와 강경도감계열, 정난종체가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사용됐다고 예를 들었다. 또 안 소장은 불경 언해의 확산기(1517~)에는 경서체 계열, 염불보권문체, 교서관체, 병학지남체, 부모은중경체 등 손글씨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글꼴이 발달됐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현재 우리 글꼴은 대부분 1900년대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선조들의 한글꼴과는 뼈대를 달리한다”며 “옛 전통 한글꼴을 현대화하는 것은 불교문화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정우영 동국대 교수의 ‘훈민정음과 불교경전의 관계’, 권인한 성균관대 교수의 ‘목간을 통해 본 신라 사경소 풍경’, 김기중 동국대 HK 연구교수의 ‘필사본 금강경 언해와 월인석보’, 김종진 동국대 교수의 ‘근대불교와 한글’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학술·문화재소식

동국대 ‘중화대장경’ 완성본 국내 유일 보유

중국 철합이학회 티베트판 동국대 도서관에 기증 전시

동국대(총장 김희옥)가 중국철합이학회로부터 중화대장경(中華大藏經) 티베트 판을 기증받아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화대장경 완성본을 소장하게 됐다.

동국대는 9월 25일 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기증식을 개최하고, 중국철합이학회로부터 중화대장경 티베트판 232권을 기증 받았다. 동국대 중앙도서관은 기존에 중화대장경 한문(漢文) 판과 티베트(藏文) 판의 단주이(丹珠爾) 120권만 소장하고 있었다.

이번 기증으로 티베트 판의 감주이(甘珠爾) 108권을 추가로 소장하게 됨에 따

라 국내서 유일하게 중화대장경 완성본을 소장하게 됐다.

중화대장경은 1987년 중국정부가 중국 티베트학연구원(中國藏學研究中心)에 ‘중국티베트학연구원대장경대감국(中國藏經對勘局)’을 설립하고 티베트 대장경 완성 작업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2005년 완성된 한문판과 2008년 간행된 티베트 판을 합해 완성된 것이다.

이번에 기증된 중화대장경 티베트 판도 이 때 제작된 것으로 단주이 120권, 감주이 108권, 목록 4권 등 총 232권이다.

노덕현 기자

국보 제55호 법주사 팔상전 지붕 해체

국보 제55호인 보은 법주사(주지 현조) 팔상전(彌相殿)이 수리를 위해 지붕을 해체했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과 보은군(군수 정상혁)은 5층 목탑건축 가운데 국내 유일의 국가지정문화재인 법주사 팔상전 최상 지붕위의 상륜부(相輪部)가 기울어진 것을 확인하고 수리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문화재청은 “현재 5층 지붕과 그 상부의 상륜부 해체와 함께 그 중요성을 고려해 기록보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단정 기록화와 정밀실측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 인조 4년(1626)에 재건된 법주사 팔상전은 철종 2년(1851)에 수리되고, 1968년에 완전 해체 수리된바 있다. 따라서 이번 수리는 재건 이후 세 번째다.

이번 해체수리는 상륜부 철물에 균열이 발생했고, 찰주(刹柱, 상륜부 중심 기둥) 하부와 5층 추녀 등 목재부에 결구 이완이 발생하는 등 노후화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청은 상륜부 철물은 균열부 제거와 보존처리 후 원위치에 그대로 사용하며 찰주 하부와 5층 추녀 등 지붕부는 최대한 기존 부재를 그대로 사용 할 계획 이다.

노덕현 기자

보물 제57호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보수

보물 제57호인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이 일제시대 이후 처음으로 해체 보수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安東 造塔里 五層塔)’을 해체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은 화강암과 전(埴)들을 혼용하여 쌓은 탑으로 일제 강점기 해체 보수 후 그동안 부분적인 보수만 진행해 왔다. 지난 2011년 정밀실측과 구

조 안전진단 결과 지반의 부분 침하와 탑 내부 적심(積心, 다짐흙)의 유출 현상이 발견돼 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체 보수공사는 조탑리 오층전탑의 3차원(3D) 스캔 작업과 전돌·줄눈의 성분 분석을 통해 교체할 전돌을 제작하고 전통방식으로 탑을 보수하게 된다. 이번 해체 보수공사는 2014년 12월까지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 불교에 있어서 한국불교’ 세미나

중앙승가대는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학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아시아불교에 있어서 한국불교’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한국불교의 선법수용

과 그 변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마성 스님의 ‘한국불교의 계율전통’, 문무왕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의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불교문화 원형에 관한 시론’, 이성운 박사의 ‘한국불교의례의 특성’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보우 스님, ‘선교’ ‘유불’ 조화... 불교 부흥 기틀 다져

제1회 보우대사 학술세미나... 5일 봉은사에 부도탑비 제막

“조선 명종 시기 보우 스님이 추구한 불교부흥 정책은 조선 후기 불교의 기틀을 마련했다.”

명종대 불교중흥을 이끌었던 보우 스님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열렸다.

손성필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은 10월 2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린 ‘제1회 보우대사 학술세미나’에서 보우 스님이 주도한 불교정책의 영향으로 조선 후기 불교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보우대사 순교 448주년을 기념해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와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진행한 학술논문 공모에 ‘허응당 보우대사의 불교사적 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최우수상을 받아 이날 연단에 섰다.

손 연구원은 “보우 스님은 고려종기 지눌, 조선 초 기화 등 기존 사상을 이어 선교

의 조화, 유불의 조화, 염불 수용 등을 펼쳤다”며 “이러한 사상은 서산대사를 통해 구체화돼 조선 후기의 강학체계인 이력과정, 수행체계인 삼문수학 등으로 전개됐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또 “보우 스님이 승정 활동을 통해 정치적 차원의 불교 부흥을 이끌었으며 이는 불교계의 인적 쇄신, 승군 동원체제의 마련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은영 한국불교학회 간사의 ‘허응당 보우의 교육사상 연구’, 박선영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의 ‘16세기 불교회화의 부흥에 있어 보우대사의 영향 연구’, 박종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술정보부의 ‘조선 전기 종교지형에 대한 보우의 인식’, 이명호정경승가를위한대중결사 사무국장의 ‘현대 한국불교의 현실분석과 보우대사의 일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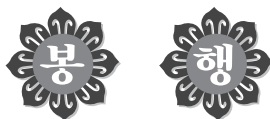
제1회 보우대사 학술세미나에는 신진학자들의 논문이 대거 입성했다.

에 기초한 대안 제시’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봉은사는 2000년 4월 보우 스님의 삶을 재조명해 발간한 <순교자 보우선사>를 개정판 한국 불교의 르네상스, 허응당 보우)를 발간했으며 5일 경내에 보우 스님 부도탑비를 제막했다.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그동안 조선시대 불교 맥을 살린 보우 스님의 진면모가 드러나지 않고 요승으로 인식돼 왔다”며 “보우 스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한국 불교를 위해 정진하는 수행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제42회 초대법왕일봉문도의 날 봉축대법회 및 제16대 회장단 이 취임식

귀의 삼보하옵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계절에 일봉문도님 여러분들과 귀빈여러분의 가내에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일봉존자님의 자비로운 은총이 항상 깃들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근대 불교사에 한 획을 그어 놓으신 우리의 스승이신 세계법왕 일봉 서경보 큰스님 제자 (은, 법, 조카, 손상좌)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초대법왕일봉문도중앙회가 매년 10월 10일이면 봉축 행사를 봉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제42회 초대법왕일봉문도의 날 봉축대법회 및 제16대 회장단 이 취임식을 해군호텔 대회의장에서 성대히 봉행하오니 공사간 다망 하시더라도 부디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 주시고, 일봉존자님을 다시한번 추앙하면서 존자님의 사상이 면투날까지 길이길이 이어 갈 수 있도록 다같이 기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일봉존자님의 가피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합장 기원드립니다.

불기 2557(2013)년 10월

사단법인 초대법왕일봉문도중앙회

회장 겸 이사장 의륜 서주범 합장
제16대 회장 동봉 합장

- 일 시 : 불기 2557(2013)년 10월 10일 (음력 9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해군호텔 대회의장 (서울 영등포구 신길 7동 101-1 / 전화 02)841-4114)
- 문 의 : 02)355-0093 문도회 / 02)777-0959 일봉신문사 / 010-6253-4936 서병열 사무총장

- * 점심제공(뷔페), 주차장완비, 대방역 지하철 3번출구에서 오전 10시부터 셔틀버스 운행.
- * 축하 화환 대신 불우이웃돕기 쌀로 받습니다.